

# 경제 동향





## ■ 요약

■ 경기 생산/출하·재고 순환/소비/물가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10월: 0.8% → 11월 -5.4%)</li> <li>- 11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86.9(200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5.4% 감소해 한 달만에 감소세로 전환</li> <li>○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확대(10월:7.5→11월:16.7%)</li> <li>- 11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과 대형마트부문이 각각 21.1.6%, 11.3%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6.7% 증가함</li> <li>○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li> <li>- 12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6%, 전년동기대비 2.5% 각각 상승함</li> </ul>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보합세</li> <li>- 12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61%로 남자는 73.9%, 여자는 51.5%임</li> <li>○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보합세</li> <li>- 12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한 491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비 보합세를 나타냄</li> <li>○ 서울의 실업률 전월대비 소폭 상승</li> <li>- 12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3.1%로,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는 1%p로 지난달 보다 소폭 상승</li> </ul>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건설 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li> <li>- 11월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조3,623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9.3% 증가함</li> <li>- 발주자별로 보면 신규 주택 및 전기 공사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50.3% 증가하였으며, 신규 주택 및 재개발 주택 부문의 발주 증가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149.4% 증가함</li> <li>○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li> <li>- 12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상승폭이 11월에 비해 0.2%p 감소함</li> <li>- 12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은 0.1%, 연립주택은 0.3% 상승한 반면, 아파트는 보합으로 나타남</li> </ul>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크게 확대</li> <li>- 11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060조 151억원으로, 전월대비 20조 3,530 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16조 7,770억)보다 크게 확대됨</li> <li>○ 서울의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li> <li>- 12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6.3%(-103개) 감소한 1,520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5.8%로 나타남</li> <li>○ 서울의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크게 감소, 어음부도율 동일</li> <li>- 12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59개) 보다 5.1%(3개) 증가한 62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함</li> <li>- 12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대비 0.02%p 하락함</li> <li>○ CD(91일) 유통수익률 급등</li> <li>- 12월말 CD유통 수익률은 MFP수신 부진에 따른 매입수요 위축으로 상승폭(0.22%p)이 더욱 확대됨</li> </ul>

## | 생 · 산 |

11월 중 경기는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

-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달과 동일한 수준
  - 11월 중 광공업생산은 9~10월(9.2%)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10.8%를 기록,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업종의 생산조정 등으로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임.
  - 서비스업 생산은 의료업, 금융·보험업,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등의 호조로 지난 달에 비해 1.4% 증가함.
- 서울 제조업부문 감소세로 전환
  - 11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86.9(2000=100)으로, 지난 1월 이후 처음 나타났던 증가세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됨
  - 업종별로 보면 섬유제품 등에서 증가한 반면, 의복 및 모피, 인쇄출판 등에서 감소함
- 서울 중공업부문, 경공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하여 지난 달 나타났던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됨
  - 세부업종별로 비금속광물(3.5%), 조립금속(15.2%) 등은 증가하였고 고무 및 플라스틱(-9.5%), 화합물 및 화학제품(-83.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31.2%) 등은 감소함
  - 경공업부문도 전년동월대비 6.7% 감소하여 다시 감소세로 전환됨
  - 세부업종별로 종이제품(27.0%), 의복 및 모피(7.8%), 가죽·가방 및 신발(6.5%) 등은 증가하였고 음식료품(-22.1%), 섬유제품(-6.0%) 등은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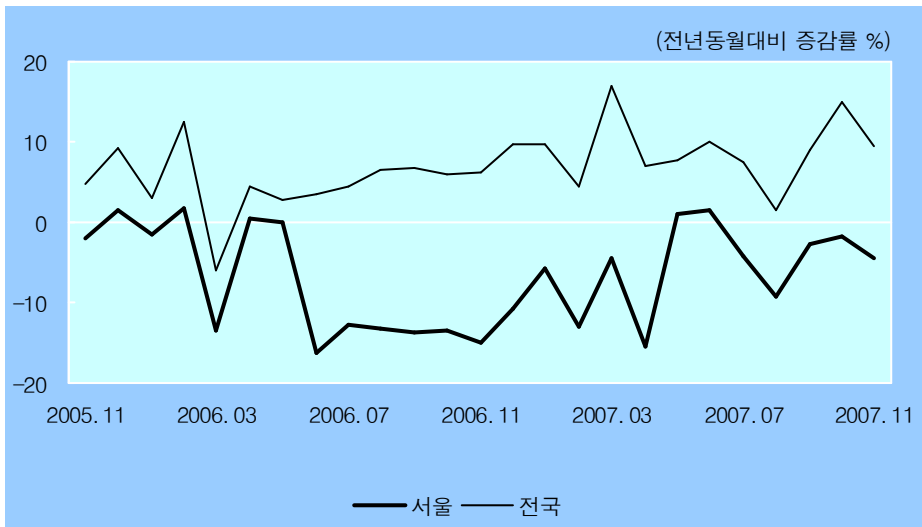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1월	7월	8월	9월	10월p	11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7.1 (-0.2)	14.3 (2.0)	11.2 (0.7)	0.4 (0.0)	18.2 (3.2)	10.8 (-0.2)
	서울 (제조업)	-6.2 (8.9)	-4.6 (-1.9)	-10.7 (-4.3)	-15.2 (4.9)	2.3 (15.2)	-7.9 (-2)
	중공업	-21.6 (11.2)	-14.7 (-19.9)	-23.9 (-8.8)	-27.7 (-0.4)	0.6 (25.5)	-11.7 (-2.4)
	경공업	-0.2 (8.1)	-1.1 (5.0)	-6.1 (-2.9)	-11.1 (6.4)	2.7 (12.4)	-6.7 (-1.9)

주: (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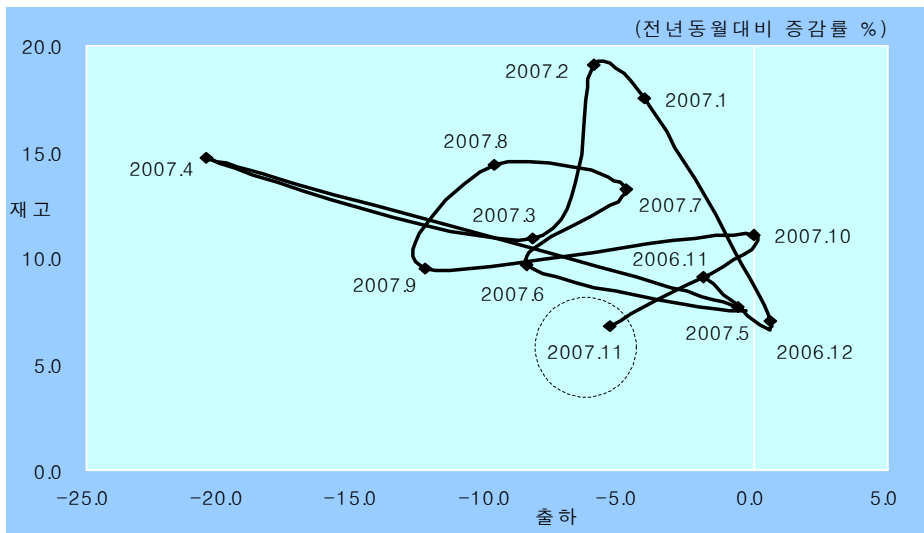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 출하 · 재고 순환 |

11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92.6(NSA, 2000=100)으로 전년 동월대비 4.4% 감소.
  - 총출하는 전년동월비 4.4% 감소했으나 전월비(SA)로는 4.1% 증가
  - 업종별로 섬유제품 등에서 증가한 반면, 의복 및 모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인쇄출판 등에서 감소
  - 출하는 전년동월비 하향하고 재고의 전년동월비 감소하여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상승

- 11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89.3%로 전월대비 1.1%p 하락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98.4%로, 전월 보다 4%p 상승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22.2% 하락하여 187.5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4.1%p 증가한 191.6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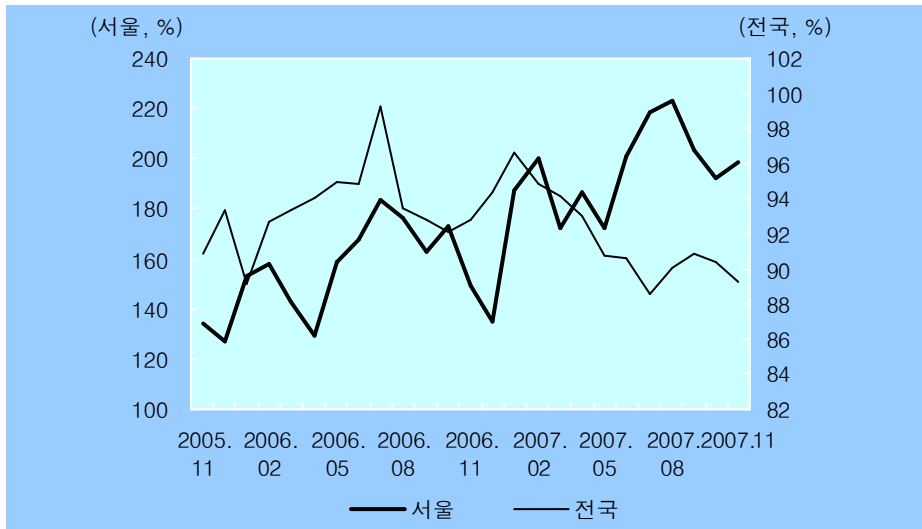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	
	11월p	7월	8월	9월	10월p	11월		
재고율	전국	91.3	88.6	90.1	90.9	90.4	89.3	-1.1
	서울 (제조업)	156.6	218.3	223.4	203.7	194.1	198.4	4.3
	중공업	157.4	264.2	269.9	216.4	209.7	187.5	-22.2
	경공업	154.7	202.7	207.9	197.9	187.5	191.6	4.1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 소 · 비 |

## 11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확대

##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폭 크게 확대

- 11월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 18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폭이 크게 증가함
- 백화점은 의복, 운동·오락용품, 화장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9.8% 증가함
- 대형마트는 음식료품, 의복, 운동·오락용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5.9% 증가함

##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폭 확대

- 10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4,08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7%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백화점부문은 전년 동월대비로는 패션관련 상품 및 운동·오락용품 등의 판매호조로 21.1% 증가함
- 대형마트부문은 전년 동월대비로는 신규사업체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상품군의 판매호조로 11.3%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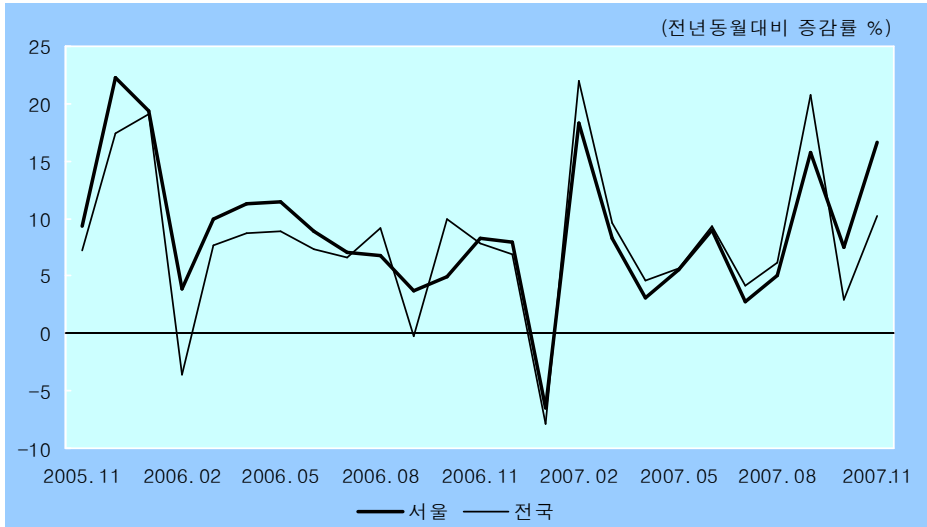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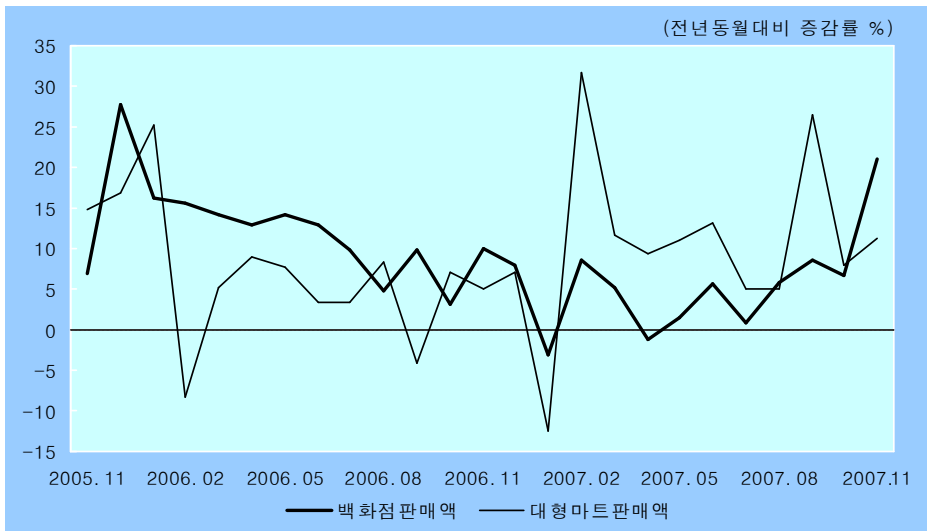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11월p	7월	8월	9월	10월	11월p
판매액	전국	3,791 (7.8)	3,784.8 (4.2)	3,562.9 (6.2)	4,489.4 (20.7)	41,047 (2.9)	4,181.4 (10.3)
	서울	1,277 (8.2)	1,231.0 (2.8)	1,123.0 (5.0)	1,459.0 (15.7)	1,408.6 (7.5)	1,490.5 (16.7)
	백화점	744 (9.9)	658.4 (0.8)	561.0 (5.8)	773.5 (8.6)	833.6 (7.8)	908.5 (21.1)
	대형마트 (할인점)	496 (4.9)	531.8 (4.9)	527.0 (4.9)	649.0 (26.5)	544.5 (8.0)	551.8 (11.3)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물 · 가 |

## 12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포함

- 12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6%, 전년동기대비 2.5% 각각 상승
- 비목별로 가구집기·가사용품이 내리고 통신은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복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교통 부문 등은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

##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12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3%로 상승함
- 비목별로 보면 식료품및비주류음료(-2.2%), 보건의료(-0.1%) 부문은 하락하였으나, 교통(1.5%), 기타잡비(0.9%), 주거및수도광열(0.7%), 의복및신발(0.6%) 부문은 상승함
- 수입쇠고기 등 축산물이 오른 농축수산물의 상승,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 영향으로 휘발유, LPG(자동차용) 등이 오른 공업제품, 전월세가 오른 집세, 치과진료비, 대입전형료 등이 오른 공공 및 개인서비스부문이 각각 상승하여 전월대비 0.3% 상승

## ■ 상품부문, 서비스 부문 모두 전월대비 상승

- 상품성질별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부문은 전월대비 0.5%, 서비스부문은 0.2% 각각 상승함
- 수입쇠고기 등 축산물이 오른 농축수산물의 상승,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 영향으로 휘발유, LPG(자동차용) 등이 오른 공업제품, 전월세가 오른 집세, 치과진료비, 대입전형료 등이 오른 공공 및 개인서비스부문이 각각 상승하여 전월대비 0.3% 상승

##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포함,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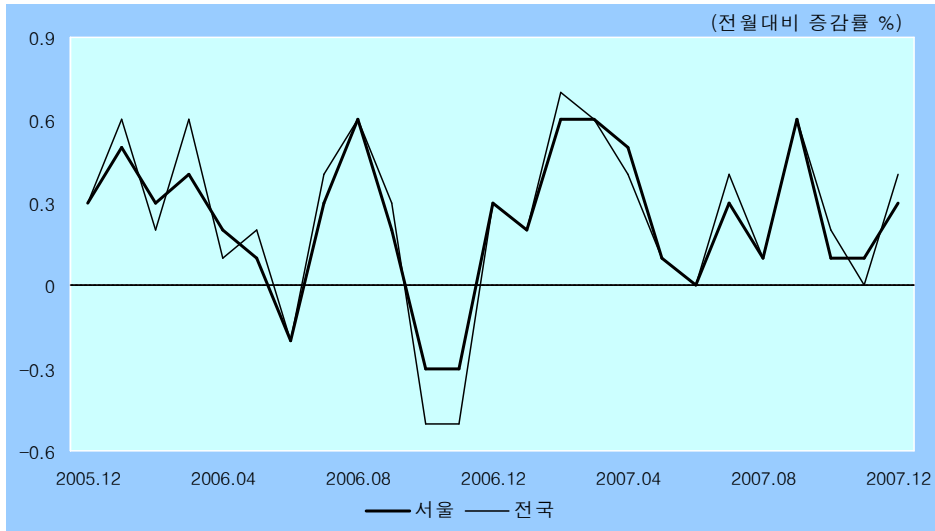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0.3% 로 소폭 상승을 보여 11월의 하락세가 다시 반등함
- 신선식품지수는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8%(전국,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6.5%(전국:5.6%)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비	전국	0.3 (2.1)	0.4 (2.5)	0.1 (2.0)	0.6 (2.3)	0.2 (3.0)	0.0 (3.5)	0.4 (3.6)	
	서울	0.3 (2.1)	0.3 (2.7)	0.1 (2.2)	0.6 (2.6)	0.1 (3.0)	0.1 (3.4)	0.3 (3.4)	
	상품 성질별	상품	0.4 (0.8)	0.5 (2.1)	0.1 (0.8)	1.3 (1.9)	0.3 (3.0)	0.0 (4.1)	0.5 (4.2)
		서비스	0.2 (2.7)	0.2 (2.9)	0.1 (3.0)	0.3 (3.0)	0.0 (2.9)	0.2 (3.1)	0.2 (3.1)
	생활물가	0.4 (2.7)	0.4 (3.6)	-0.1 (2.7)	0.9 (3.2)	0.3 (3.9)	0.0 (4.7)	0.3 (3.4)	
	신선식품	3.0 (0.6)	3.7 (10.4)	0.2 (-1.2)	8.9 (5.7)	1.3 (10.1)	-6.3 (10.7)	0.3 (3.4)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12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소폭하락

##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보합

- 12월 전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9%(22만) 증가한 3,931만6천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22만명 증가한 2,399만3천명임
-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남자는 73.9%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고, 여자는 51.5%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함

##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소폭하락

- 12월 중 서울시 15세 이상 인구는 8,219천명으로 남자는 3,987천명, 여자는 4,231천명임.
- 경제활동인구는 512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8%p 감소한 62.3%이며 남자는 73.9%, 여자는 51.5%임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1.1 (-1.9)	1.1 (-0.5)	1.0 (-1.4)	1.0 (0.5)	0.9 (0.6)	1.0 (0.0)	0.9 (-2)
	서울	-1.0 (-0.9)	1.0 (0.5)	1.1 (-0.8)	1.2 (0.5)	0.5 (0.2)	0.2 (0.0)	-0.1 (-1.2)
	남자	-1.6 (-0.6)	1.1 (0.7)	1.6 (-0.5)	1.1 (-0.3)	0.4 (-0.2)	0.7 (0.2)	0.2 (-1)
	여자	-0.2 (-1.3)	0.9 (0.2)	0.4 (-1.2)	1.4 (1.7)	0.5 (0.8)	-0.5 (-0.2)	-0.5 (-1.3)
	경제활동 참가율	61.1	62.6	61.7	62.0	62.3	62.2	61
서울	62.8	63.4	62.8	63.1	63.1	63.1	62.3	
남자	74.3	75.6	75.1	74.8	74.6	74.7	73.9	
여자	52.0	51.8	51.2	52.0	52.4	52.2	51.5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취·업·자 |

## 12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포함세

## ■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2월 전국의 취업자는 2,325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26만8천명)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8.4%(1,357만2천명), 여자는 41.6%(968만5천명)로 남자는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하고, 여자도 전년동월대비 1%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9%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3.4% 증가함
- 청년층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월(-0.6%)에 비해 감소폭이 2.3%p 증가한 -2.9%이며, 고령층의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7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섬

##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포함세

- 12월 서울의 취업자는 491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6천명) 증가함
- 전국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 이상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서울의 취업자 수도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되나 9월 이후 증가감소가 계속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7.3%(281만6천명), 여자는 42.7%(209만7천명)로 전체 취업자중 남자 취업자의 비중은 전국에 비해 16%p 낮고, 여자는 전국에 비해 1%p 높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9% 증가하고 여자는 0.8% 감소하여 남자는 전월(1.4%)에 비해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감소를 보인 반면, 여자는 전월(-0.5%)의 하락세가 유지됨.
- 전체 취업자의 20.4%(100만7천명)를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함
- 전체 취업자의 14.7%(72만4천명)를 차지하는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1.2% 감소함
-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55세에서 60세 사이의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은 5.1%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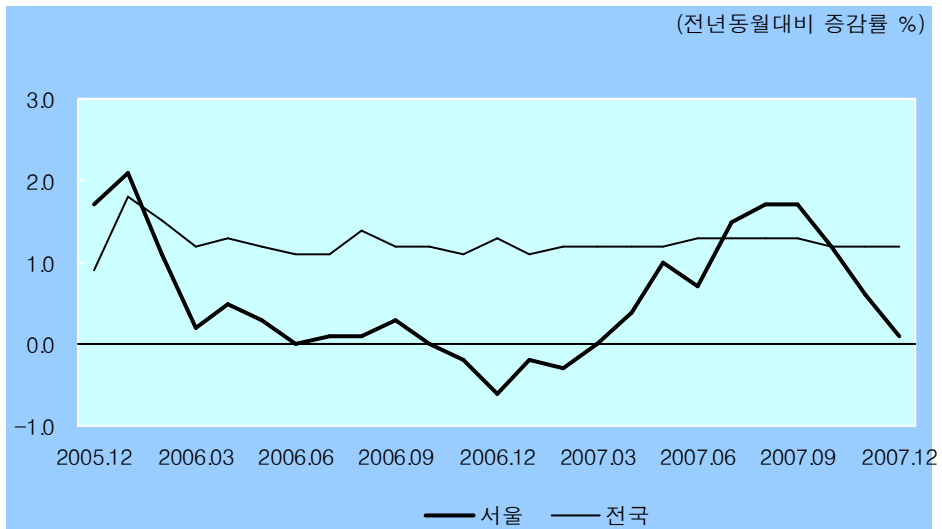
〈표〉 고용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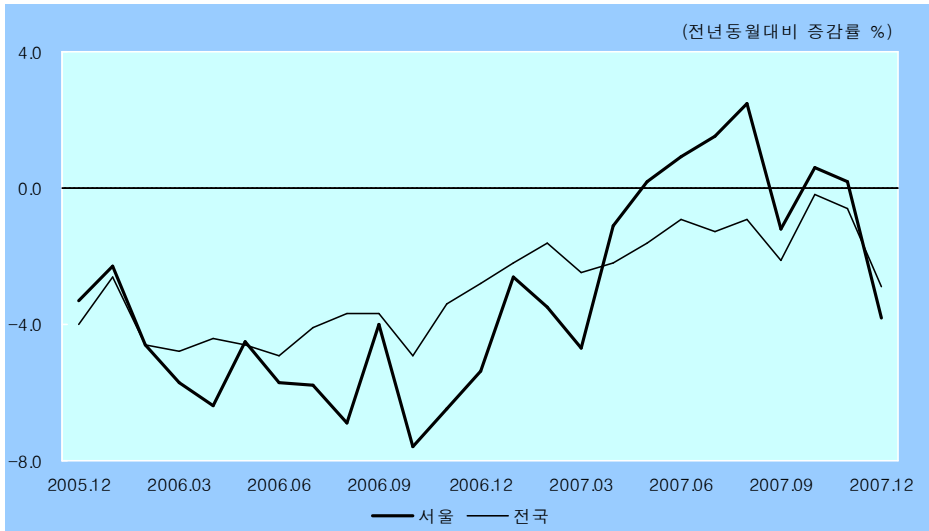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취업자	전국	1.3 (-2.0)	1.3 (-0.3)	1.3 (-1.2)	1.3 (0.7)	1.2 (0.5)	1.2 (0.0)	1.2 (-2)
	서울	-0.6 (-0.8)	1.5 (0.3)	1.7 (-0.8)	1.7 (0.6)	1.2 (0.1)	0.6 (0.0)	0.1 (-1.3)
	남자	-1.5 (-0.7)	1.0 (0.4)	1.6 (-0.7)	1.1 (-0.3)	1.2 (0.1)	1.4 (0.3)	0.9 (-1.2)
	여자	0.4 (-1.1)	2.1 (0.2)	1.9 (-1.0)	2.5 (1.8)	1.3 (0.1)	-0.5 (-0.5)	-0.8 (-1.4)
	청년층 취업자	전국	-2.8 (0.6)	-1.3 (2.9)	-0.9 (-3.0)	-2.1 (-2.5)	-0.2 (1.3)	-0.6 (0.6)
서울	-5.3 (1.1)	1.5 (1.7)	2.5 (-2.3)	-1.2 (-3.0)	0.6 (-0.5)	0.2 (1.0)	-3.8 (-3)	
고령층 취업자	전국	6.4 (-7.8)	5.7 (-2.2)	5.5 (-0.6)	5.0 (1.5)	2.6 (0.4)	2.0 (-2.1)	3.4 (-6.5)
	서울	6.3 (-1.8)	9.4 (1.5)	8.1 (-0.7)	10.7 (3.8)	2.5 (-2.1)	0.7 (-1.6)	-0.5 (-2.8)
	55-59세	-1.6 (-3.4)	5.7 (3.4)	7.2 (0.2)	5.9 (1.6)	5.4 (1.5)	2.7 (-1.3)	5.4 (-0.7)
	60세 이상	13.0 (-0.5)	12.3 (0.2)	8.7 (-1.3)	14.5 (5.4)	0.3 (-4.7)	-0.9 (-1.7)	-5.1 (-4.6)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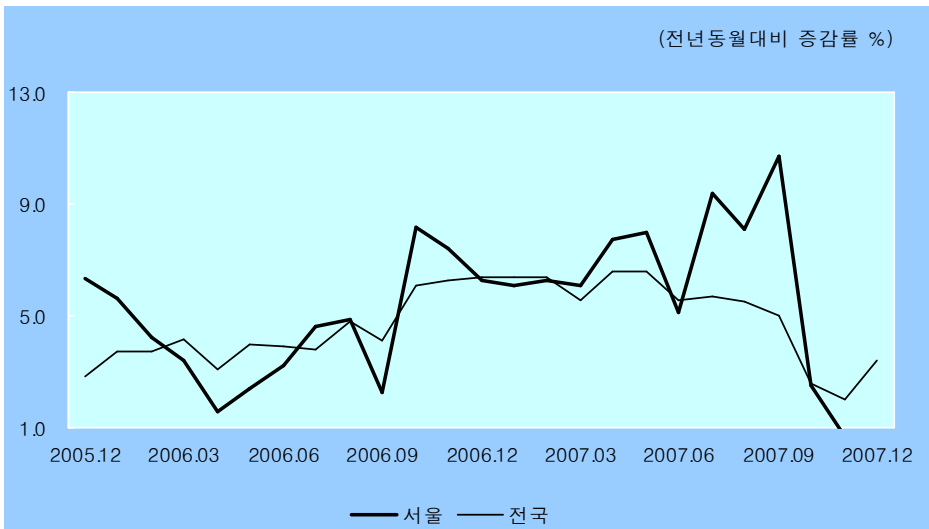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감소

- 12월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9%)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28.2%), 제조업(13.4%),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0%), 건설업(8.2%)의 순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하여 전월(4.5%)과 유사한 증가세를 보였고, 이어 전기·운수·통신·금융업(2.4%), 건설업(2.3%)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
- 반면 제조업은 8%, 도소매·음식숙박업은 3%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지난달(-9.8%)에 비해 소폭 감소됨

### ■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12월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31.8%)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7.2%), 서비스·판매 종사자(25.4%), 사무종사자(15.5%) 순임
- 전문·기술·행정관리자(6.8%)를 제외한 사무종사자(-3.1%)와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5%), 서비스·판매 종사자(-2.5%)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함
- 6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11월(4.8%)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12월(-2%) 다시 감소세로 돌아섬

### ■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지속

- 12월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3.9% (362만9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6.1%(128만4천명)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6% 증가와 3.8%감소를 보임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6%(5만7천명)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는 3.8%(5만1천명) 감소하여 지난달에 이어 비임금근로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이어감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1.8%)와 임시근로자(-5.6%)는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1.8% 감소하고, 자영업주는 2% 감소함

〈표〉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업별	· 제조업	-6.8 (-1.8)	-7.6 (-0.4)	-7.5 (-2.5)	-4.8 (3.5)	-8.0 (1.9)	-9.8 (-8.5)	-8 (0.2)
	SOC 및 기타서비스업	0.5 (-0.7)	3.2 (0.4)	3.5 (-0.6)	2.6 (-0.2)	3.1 (0.1)	2.5 (1.4)	1.6 (-1.5)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1 (-1.2)	10.0 (0.8)	9.4 (-0.6)	7.3 (-0.5)	8.2 (1.3)	4.5 (-0.7)	4.7 (-1)
	· 도소매·음식숙박	-1.2 (1.4)	-5.0 (1.7)	-4.0 (-0.6)	-4.7 (-0.9)	-5.5 (-1.4)	-3.5 (2.7)	-3 (2)
	· 전기·운수·통신·금융	-0.3 (-0.2)	3.3 (0.7)	2.9 (-0.4)	6.3 (0.3)	7.1 (-0.3)	9.7 (6.6)	2.4 (-6.8)
	· 건설업	-3.7 (-5.7)	2.5 (1.9)	4.5 (-0.5)	2.9 (2.8)	5.0 (-0.1)	4.8 (0.5)	2.3 (-7.9)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0.4 (-2.3)	6.2 (-1.4)	7.3 (0.0)	6.0 (0.4)	5.8 (-0.8)	3.2 (-0.9)	6.8 (1.1)
	기능·기계작·조립·단순종사자	-3.0 (-3.5)	-0.7 (1.7)	1.2 (-1.6)	0.6 (0.8)	-1.4 (0.9)	-2.1 (-2.5)	-2.5 (-3.9)
	서비스·판매종사자	1.7 (3.7)	-2.6 (2.0)	-3.8 (0.1)	-1.9 (-0.2)	-0.3 (0.8)	3.2 (4.8)	-2.5 (-2)
	사무종사자	-2.1 (-0.3)	3.1 (-1.3)	1.3 (-2.6)	-0.2 (0.4)	0.3 (0.6)	-3.4 (-1.3)	-3.1 (-0.1)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0.1 (-1.1)	1.6 (0.7)	3.0 (-1.2)	3.4 (1.1)	2.8 (0.3)	1.5 (-0.7)	1.6 (-1)
	비임금근로자	-2.6 (-0.2)	1.1 (-0.8)	-1.7 (0.3)	-2.9 (-0.8)	-3.1 (-0.4)	-1.9 (1.9)	-3.8 (-2.1)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실·업·률 |

## 12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 전국의 실업률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2월 전국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3.1%(실업자 73만6천명)로 전월(3.0%)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4%(실업자 47만6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여자는 2.1%(실업자 20만6천명)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함
- 연령별로 실업률은 30대와 60세이상에서는 상승한 반면, 그 외 모든 연령계층에서는 하락하였음
- 교육정도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고졸(-20천명, -4.8%), 중졸이하(-19천명, -14.6%), 대졸 이상(-10천명, -4.0%)에서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대졸이상에서 0.3%, 중졸이하에서 0.3%, 고졸에서 0.1% 하락하였음

## ■ 서울의 실업률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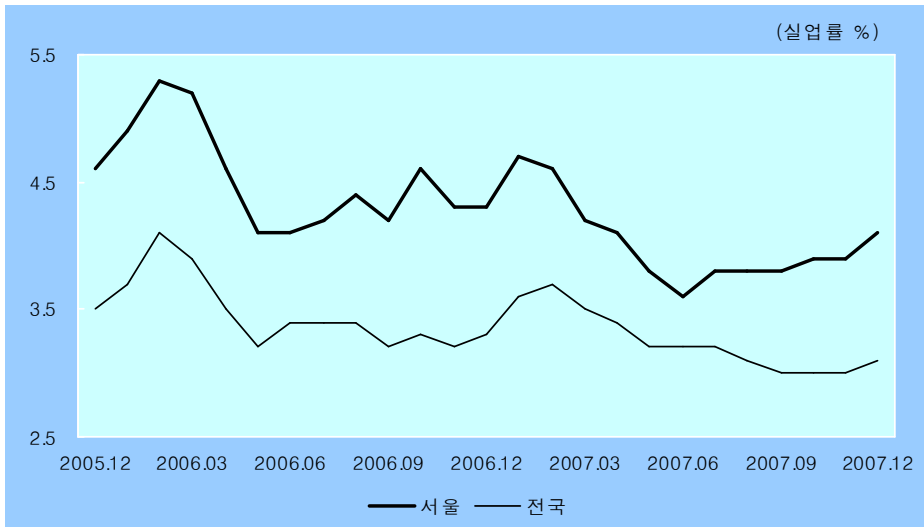
- 12월 서울시 15세 이상 인구는 821만9천명으로 남자는 398만7천명, 여자는 423만1천명임.
- 12월 서울시 경제활동인구는 512만2천명으로 남자는 294만5천명, 여자는 217만7천명임.
- 12월 서울의 실업자는 20만9천명,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실업자 1만1천명(-4.8%), 실업률 0.2% 각각 감소하였음
- 실업자는 남자는 12만9천명으로 1만7천명(-11.8%)이 감소하였고, 여자는 8만명으로 7천명(9.1%)이 증가하였음.
- 전월대비 실업자는 5천명(2.5%)이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0.2% 증가하였음
- 남자와 여자의 실업률 격차는 전월에 비해 0.1%p 증가한 0.7%p 한 달 만에 감소세가 사라짐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3.3	3.2	3.1	3.0	3.0	3.0	3.1	
서울	4.3	3.8	3.8	3.8	3.9	3.9	4.1	
성 별	남자	5.0	4.4	4.6	4.6	4.3	4.2	4.4
	여자	3.3	3.0	2.8	2.7	3.3	3.6	3.7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 건 · 설 · 경 · 기 |

### 1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대폭 증가

#### ■ 전국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

- 11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12조3,206억 원으로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대비 36.3%의 증가를 보임
-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에서 32.1% 증가하고, 민간부문도 27.7%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에서 65.0% 증가하고, 건축부문은 28.7% 증가함

#### ■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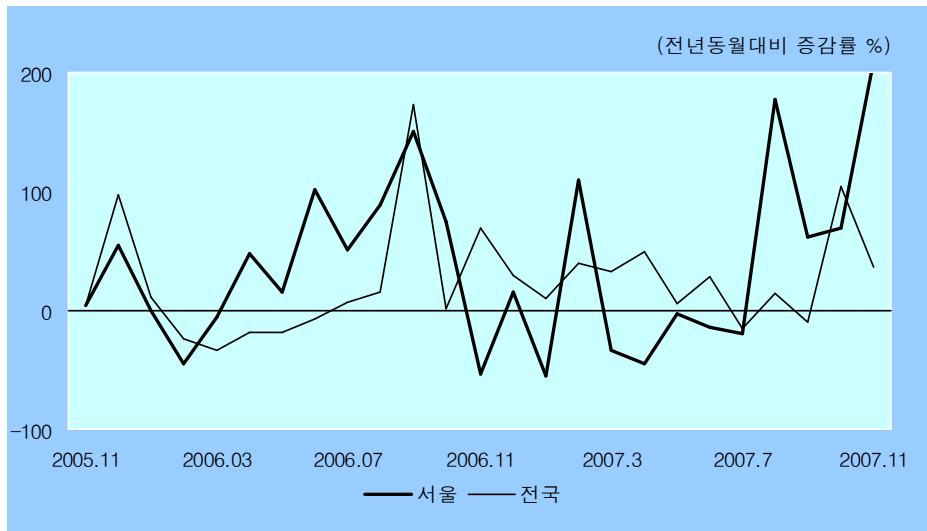
- 11월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조3,623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9.3% 증가함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1.1%를 차지
- 발주자별로 보면 신규 주택 및 전기 공사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50.3% 증가하였으며, 신규 주택 및 재개발 주택 부문의 발주 증가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149.4%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67.4%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192.4% 증가하였으며, 32.4%를 차지하는 토목 부문에서 256.1% 증가함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9,030.8	6,059.5	6,586.3	9,122.4	10,735	12,310.6	36.3	14.7	
서울	440.5	890.3	2,325.7	2,124.2	2,144.9	1,362.3	209.3	-36.5	
발주 자별	공공	176.8	55.6	104.8	75.1	163.1	265.7	50.3	62.9
	민간	263.8	834.7	2,200.4	1,983.8	1,967.9	657.9	149.4	-66.6
공종 별	건축	313.9	877.6	2,200.8	2,119.6	2,086.3	917.9	192.4	-56.0
	토목	124.2	7.8	118.7	3.3	54.0	442.3	256.1	719.1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07년 12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3,182천㎡로 전년동월대비 0.83% 감소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단독의 신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7.4% 증가하고, 아파트는 97.0% 감소하였으며, 연립은 전년동월대비 247.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87.7% 감소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공업(91.1%), 문교 및 사회(98.6%)는 증가하고 상업(1.6%), 기타(44.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함
- 2007년 12월 신축허가면적이 가장 큰 구는 구로구(951.8천㎡)로 상업용 신축허가면적이 951.1천㎡를 차지함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3,156.0	3,844.0	3,688.4	5,800.5	813.9	3,182.2	0.8	291.0	
주거용	소계	299.9	290.5	405.0	1,853.5	29.5	36.9	-87.7	25.1
	단독	9.8	14.8	8.6	16.8	1.7	11.5	17.4	576.5
	연립	4.8	84.8	77.2	109.4	20.6	16.7	247.9	-18.93
	아파트	285.3	189.5	319.2	1,726.7	7.2	8.7	-97.0	20.83
비주거용	소계	2,772.0	3,553.5	3,283.3	3,947.0	784.5	3,065.4	10.6	290.8
	상업	2,259.7	2,998.2	2,766.2	2,416.9	696.6	2,223.9	-1.6	219.3
	공업	24.3	32.7	49.1	111.4	0.0	91.1	274.9	0
	문교/사회	334.9	483.7	413.5	206.1	87.2	665.1	98.6	662.7
	기타	153.1	38.9	39.6	1,212.1	0.6	85.2	-44.4	14100.0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포함

자료: 서울시 건축과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12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둔화

##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둔화

- 12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하락함
- 12월 대선을 전후로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임
- 재개발 투자수요로 인한 단독주택, 연립주택의 강세가 서울강북과 인천 등을 중심으로 지속됨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보합으로 조사되었고 단독주택이 0.2%, 연립주택이 0.5% 상승하여 투자수요로 인한 연립주택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되었으나 상승률은 다소 둔화됨

##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2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상승폭이 11월에 비해 0.2%p감소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대비 0.2%p 높은 수준으로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과 동일함
- 세부지역별로 강북은 0.6% 상승하고, 강남은 0.0% 상승하여 강북지역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됨
- 주택유형별로 보면 연립주택이 0.5% 상승하고 단독주택이 0.2%, 아파트는 보합으로 조사 되었으며 투자수요로 인한 연립주택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되었으나 상승률은 다소 둔화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9	0.3	0.2	0.3	0.3	0.3	0.1	3.1	
서울	3.0	0.5	0.3	0.4	0.4	0.5	0.3	5.4	
아파트	3.7	0.3	0.2	0.2	0.3	0.3	0.1	7.2	
지역별	강북	3.8	0.7	0.4	0.6	0.9	0.9	0.6	8.7
주택매매	강남	2.2	0.4	0.3	0.2	0.2	0.0	0.0	2.6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노원구, 강북구

- 강북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 14개 구 중 9개 구가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3%)을 웃돌고 있으며, 이 중 4개 구가 강북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6%)을 상회함
- 노원구(1.2%)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강북구(0.9%), 은평구(0.9%), 중랑구(0.9%), 성동구(0.5%), 용산구(0.5%), 도봉구(0.4%), 성북구(0.4%), 중구(0.4%)의 순임
- 반면 동대문구(0.2%), 종로구(0.1%)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함

###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강서구, 영등포구

- 강남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11개 구 중 5개 구가 강남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0%)을 상회함
- 강서구와 영등포구가 0.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로구(0.2%), 금천구(0.1%), 동작구(0.1%)가 그 뒤를 이음

###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전월보다 상승폭이 0.2%p 감소함
- 강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한데 반해, 강남은 0.1% 하락함
- 구별로 보면 강북구(1.7%), 노원구(1.0%), 성북구(0.5%), 서대문구(0.4%), 종로구(0.4%), 중랑구(0.3%), 도봉구(0.2%), 동대문구(0.2%), 용산구(0.2%)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1%)을 상회함
- 반면 강동구(-0.3%), 서초구(-0.3%), 양천구(-0.2%), 강남구(-0.1%), 서초구(-0.1%)는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고,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보임
- 서울의 아파트 3.3 $m^2$ 당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한 1,762만원으로 전월(0.1%)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됨
- 아파트 3.3 $m^2$ 당 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3,502만원), 서초구(2,742만원), 송파구(2,529만원), 용산구(2,457만원), 양천구(2,081만원), 강동구(1,900만원), 광진구(1,840만원)임
- 아파트 3.3 $m^2$ 당 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도봉구(973만원), 은평구(953만원), 중랑구(953만원), 금천구(913만원)임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12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

##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2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임
- 계절적인 비수기로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임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포함, 단독주택이 0.1%, 연립주택이 0.3%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강세가 지속되었으나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음

##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12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월대비 상승폭은 전월과 동일함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이 11월 0.5%에서 12월 0.2%로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강남지역은 -0.1%로 전월과 동일함
-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0.1% 상승하고, 연립주택은 0.3% 상승한 반면, 아파트는 포함으로 나타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0.6	0.1	0.1	0.3	0.2	0.1	0.1	2.6	
서울	0.6	0.3	0.2	0.4	0.3	0.2	0.1	3.7	
아파트	0.6	0.1	0.2	0.1	0.1	-0.1	-0.1	2.2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0.8	0.4	0.2	0.6	0.4	0.5	0.2	5.4
	강남	0.5	0.1	0.2	0.3	0.2	-0.1	-0.1	2.2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주요 상승지역은 강북구, 성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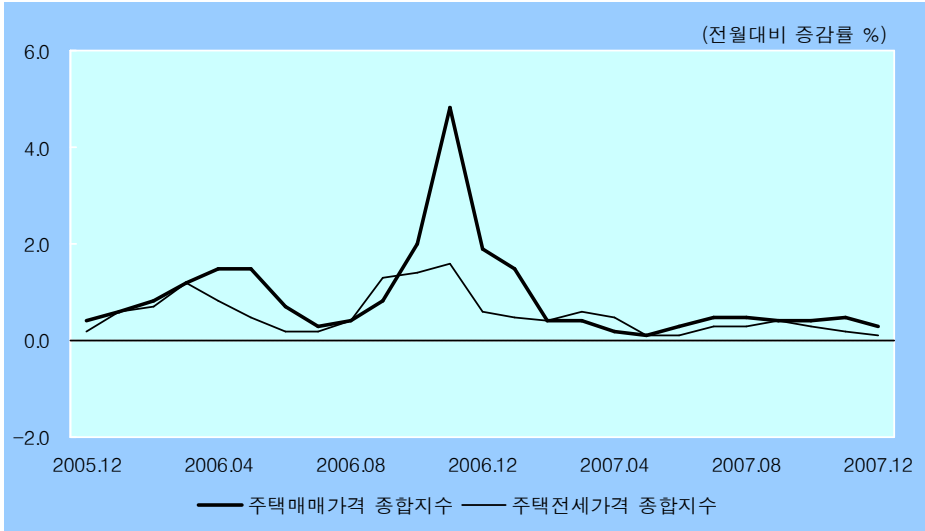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은평구(0.8%)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서대문구(0.4%), 강북구(0.3%), 중구(0.3%), 광진구(0.2%), 노원구(0.2%), 중랑구(0.2%), 동작구(0.2%), 영등포구(0.2%)에서 서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0.1%)을 상회함
- 강서구(-0.7%), 송파구(-0.4%), 강남구(-0.2%), 서초구(-0.2%), 강동구(-0.1%)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금천구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나타냄

### ■ 아파트 전세가격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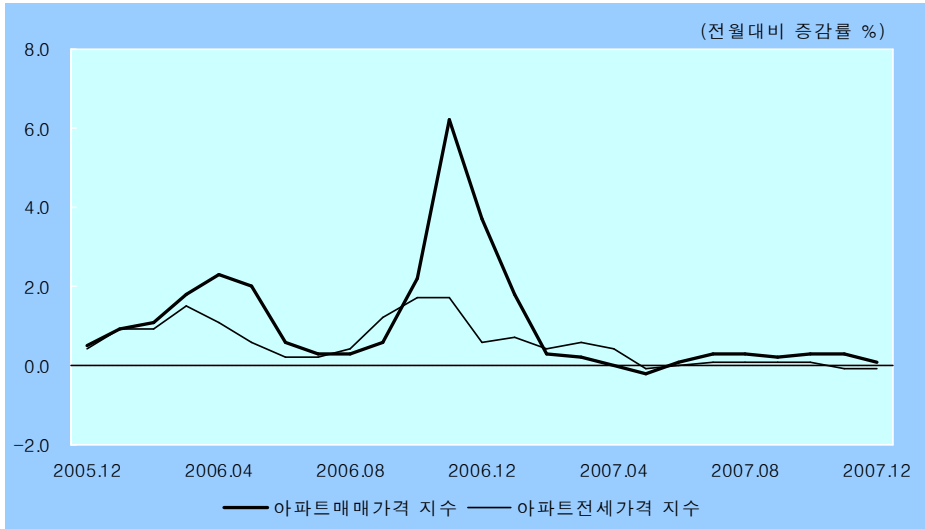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로 하락함
-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을 보면 강북은 0.0%로 보합을 나타내고, 강남은 0.2% 하락함
- 구별로는 서대문구(0.2%)와 용산구(0.2%)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노원구(0.1%), 마포구(0.1%), 은평구(0.1%), 관악구(0.1%), 구로구(0.1%), 동작구(0.1%), 영등포구(0.1%)에서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랑구, 금천구, 송파구에서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보임
- 반면 강서구(0.9%), 광진구(-0.7%), 송파구(-0.4%), 강동구(-0.2%), 서초구(-0.2%), 동대문구(-0.1%), 성북구(-0.1%), 중구(-0.1%), 강남구(-0.1%)는 전월대비 전세가격이 하락함
- 12월중 서울의 아파트 3.3m<sup>2</sup>당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한 626만원으로 강남구(970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금천구(441만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하락세 지속

- 2007년 12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2.2%로 전월에 비해 미미한(0.2%p) 하락을 보이며, 올해 5월(43.2%)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임
- 이는 전국 평균 54.0%를 11.8%p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는 11월에 비해 0.1%p 확대됨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7.9%, 강남은 37.3%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지속되면서, 강북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7년 5월 이후로 미미하지만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강남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도 미미한 하락세를 보임
- 2006년 11월 처음 30%대를 기록한 강남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월(37.4%)에 비해 0.1%p 하락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 12월 국고채 유통수익률 급등 후 반락

##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급등 후 반락

- 12월말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12월초경 6%대까지 급등한 후 상당폭 반락으로 돌아섬(11월말 5.77%→12월 7일 6.11%→12월말 5.74%)
- 이는 11월말 발생한 채권시장 불안 여파가 남은 가운데 국내물가 상승우려로 인해 급등함
-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스왑시장 불안 완화,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 등으로 상승폭 축소됨

## ■ CD(91일) 유통수익률 급등

- 12월말 CD 유통수익률은 MMF수신 부진에 따른 매입수요 위축으로 상승폭(0.22%p)이 더욱 확대됨
- 12월말 콜금리(1일)는 5.02%로 전월과 동일함

## ■ 장단기 금리차 확대됨

- 12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0.08%p로, 전월에 비해 상당폭(-0.25%p) 축소됨

## ■ KOSPI 지수 등락을 거듭

- 12월중 KOSPI 지수는 1900p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 (12월 6일 1,953p→12월 17일 1,840p→12월24일 1,909p→12월말 1,897p)
- 글로벌 신용불안 우려 완화로 인해 외국인 순매도 규모를 축소하고 선물도 순매수로 전환하여 1,897p로 마감함
- KOSDAQ 지수는 월중반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나 월말 소폭 반등한 704.2p로 마감함

## ■ 원/달러 환율 상승

- 12월중 원/달러 역외매도, 수출대금 공급 등으로 하락함(12월 17일 919원)
- 월중반 외국인 주식 역송금 및 결제수요 요인으로 943원까지 상승하였다가(12월 20일)

수출대금 공급 및 차익실현 매물 여파로 상승폭이 축소되어 936원대로 마감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 리	국고채(3년)	4.92	5.43	5.46	5.43	5.77	5.74	-0.03
	CD(91일물)	4.86	5.29	5.35	5.35	5.60	5.82	0.22
	콜금리(1일)	4.60	4.98	4.98	5.01	5.02	5.02	0
	장단기 금리차 <sup>1)</sup>	0.32	0.14	0.11	0.08	0.17	-0.08	-0.25
주 가	KOSPI <sup>2)</sup>	1,434.46	1,841.7	1,946.5	2,064.9	1,906.0	1,897.1	-8.9
	KOSDAQ <sup>2)</sup>	606.15	775.1	794.6	810.1	741.8	704.23	-37.57
환율 (₩/US\$) <sup>2)</sup>	930.6	938.3	915.1	900.7	921.1	936.1	15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은행의 가계대출 소폭 감소

- 12월중 은행의 가계대출도 소폭 감소로 전환함
- 주택담보대출은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집단 대출이 증가하였으나 일부 은행의 대출채권 양도 등으로 소폭 감소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 대출도 연말 상여금 지급,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등으로 감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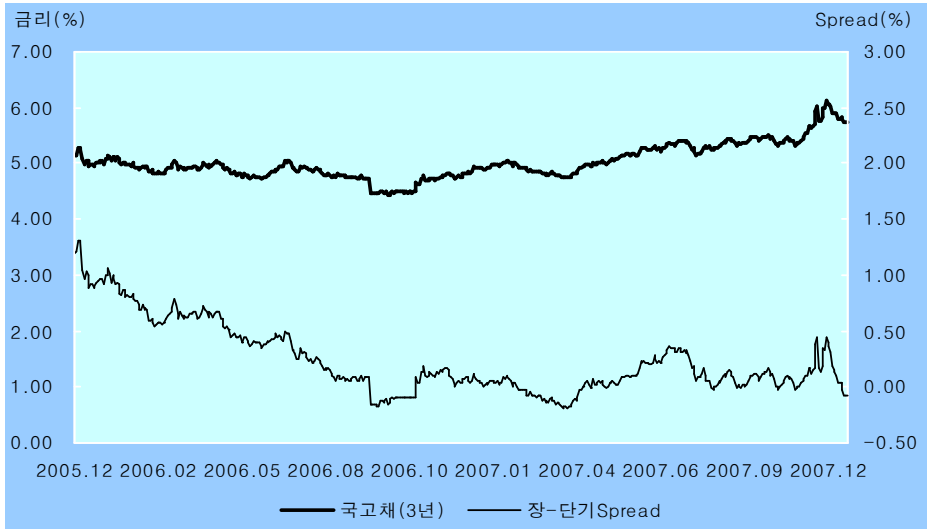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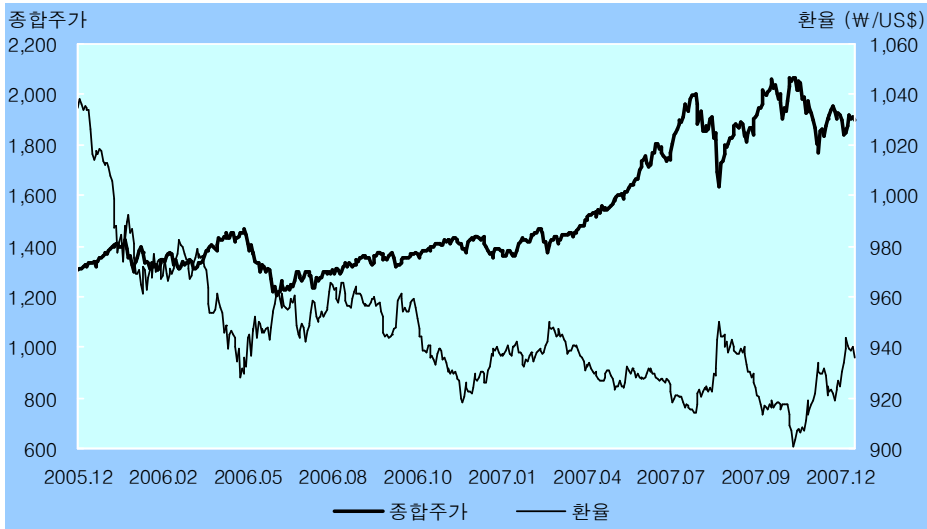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월말잔액		전월비
	연중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년		
							11월	12월	
가계대출 <sup>1)</sup>	40.9	5.0	0.9	3.9	3.3	-0.3	363.7	363.4	0.9
주택담보대출 <sup>2)</sup>	26.8	3.2	0.3	1.1	1.6	-0.0	221.5	221.5	0.0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4.0	1.7	0.6	2.8	1.7	-0.3	140.4	140.1	-0.2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1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확대

- 11월말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060조 151억원으로, 전월대비 20조 3,530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10월 증가액: 16조 7,770억)이 확대됨
- 11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23조 417억원으로, 전월대비 11조 2,449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7조 4,163억원)보다 확대됨

<표> 서울시 금융기관<sup>1)</sup>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원)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액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예금은행	692,188.3	764,660.6	777,069.7	790,358.7	807,189.4	16,830.7
	비은행기관	214,453.9	243,017.2	245,822.4	249,303.4	252,825.7	3,522.3
	합계	906,642.2	1,007,677.8	1,022,892.1	1,039,662.1	1,060,015.1	20,353.0
서울	예금은행	287,087.7	319,306.4	327,216.4	333,662.8	343,211.3	9548.5
	비은행기관	60,244.8	75,718.3	77,161.1	78,134.0	79,830.4	1,696.4
	합계	347,332.5	395,024.7	404,377.5	411,796.8	423,041.7	11,244.9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11월 기준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소폭 상승

- 11월말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58.4%로 전월에 비해 0.3%p 상승함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sup>1)</sup> 추이

(단위 : %, %p)

	2006년	2007년					증감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85.3	85.9	86.4	86.9	87.6	87.9	0.3
서울	57.3	56.6	57.1	57.9	58.1	58.4	0.3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 창·업·동·향 |

### 12월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 신설법인 수 증가
  - 12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249개로 전년동월대비 0.6%(26개) 증가함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14.8%)과 서비스업(3.5%)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15.0%)은 감소함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69.2%, 제조업 17.7.8%, 건설 및 설비업 12.4%를 차지함
  
- 서울 신설법인 수 감소
  - 12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6.3%(-103개) 감소한 1,520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5.8%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19.6%)이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5.5%)과 제조업(-37.6%)은 감소함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감소
  - 서울의 제조업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37.6%(-41개) 감소하여 68개를 나타냄
  - 부문별로 보면 사업서비스업(23.5%), 건설업(25.3%), 고무 및 화학제품(42.9%) 등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통신업(-100%), 섬유 및 가죽(-57.7), 부동산 및 임대업(-40.3), 등이 크게 감소함
  -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88.8%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223	3,202	4,595	4,388	4,249	26	0.6	-139	-3.2
서울	1,623	1,233	1,680	1,617	1,520	-103	-6.3	-97	-6.0
서비스업	1,420	911	1,333	1,380	1,342	-78	-5.5	-38	-2.8
제조업	109	186	159	101	68	-41	-37.6	-33	-32.7
건설 및 설비업	92	135	186	133	110	18	19.6	-23	-17.3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 12월 서울 어음부도율 상승

#### ■ 전국 어음부도율 하락

- 12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대비 0.01%p 하락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78개로, 전월(210개) 보다 15.2%(32개) 감소함
- 업종별로 제조업(-21개)과 건설 및 설비업(-7개), 서비스업(-3개) 등 전업종이 감소함

#### ■ 서울 어음부도율 하락

- 12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대비 0.02%p 하락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59개) 보다 5.1%(3개) 증가한 62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함
- 지역별 부도업체 수는 서울이 3개 증가, 지방은 35개(151개→116개) 감소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국 부도업체 수의 34.8%를 차지함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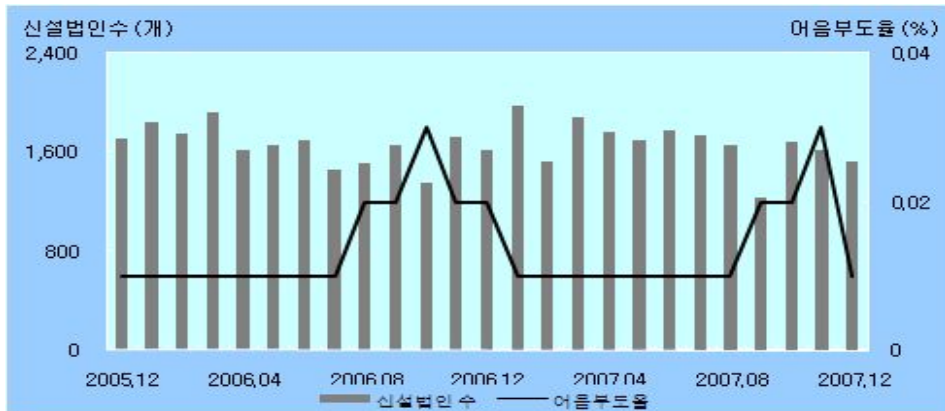
(단위: 개소, %,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2	0.03	0.04	0.03	-0.01	-25.0	0.00	0.0
	부도업체 수	169	138	258	210	178	-32	-15.2	9	5.3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2	0.02	0.03	0.01	-0.02	-66.7	-0.01	-50.0
	부도업체 수	58	52	78	59	62	3	5.1	4	6.9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자료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12월 안정적인 보증공급 추세 지속

### ■ 건당 평균금액의 전월수준 유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12월중 838건, 26,479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 14.3%, 금액 15.4% 감소함
- 건당 평균보증금액이 30백만원을 초과하여 전월 수준을 유지, 안정적인 보증공급 추세를 지속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081	1,852	1,223	1,447	978	838	-140	-14.3	-243	-22.5
금액	39,401	31,927	21,473	28,455	31,304	26,479	-4,825	-15.4	-12,922	-32.8
건당평균금액	36.4	17.2	17.6	19.7	32.0	31.6	-0.4	-1.3	-4.8	-13.2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

- 12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금액 기준)이 2개월 연속 증가한 반면 그 외 업종의 비중(금액 기준)은 2개월 연속 감소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75	324	192	218	29	838
비율	8.9	38.7	22.9	26.0	3.5	100
금액	3,145	11,226	4,599	6,281	1,228	26,479
비율	11.9	42.4	17.4	23.7	4.6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중기기업의 비중(금액기준)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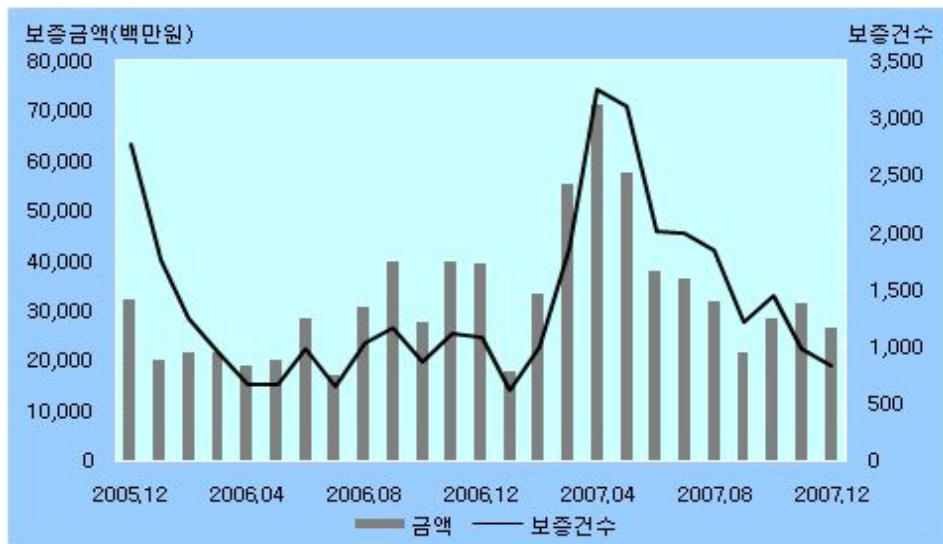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종료 이후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3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중기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전월 대비 2.3%p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7.10	2007.11	2007.12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380	886	735	-151
	비율	95.4	90.6	87.7	-2.9
	금액	25,212	23,402	19,510	-3,892
	비율	88.6	74.8	73.7	-1.1
소기업	건수	44	77	80	3
	비율	3.0	7.9	9.6	1.7
	금액	2,319	6,711	5,359	-1,352
	비율	8.2	21.4	20.2	-1.2
중기업	건수	23	15	23	8
	비율	1.6	1.5	2.7	1.2
	금액	924	1,191	1,610	419
	비율	3.2	3.8	6.1	2.3
합계	건수	1,447	978	838	-140
	비율	100	100	100	0
	금액	28,455	31,304	26,479	-4,825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